

임상빈: 최근 작업

"컴퓨터는 '실제를 관찰하기 위해서는 관람자가 그 밖에 있어야 한다'는 미술과 실제의 관계에 대한 전통적인 시선을 전복시키는 미학적 힘이 있다... 컴퓨터는 관찰자와 피관찰자, 안과 밖의 구분을 넘어 전통적인 환영의 필요 자체를 부정하게 될지도 모른다."

(Jack Burnham, 『지능형 시스템의 미학』)

1969년, 뉴욕 구겐하임 미술관은 컴퓨터 공학의 발전이 어떻게 전통적인 미술 제작방식을 변혁하는지에 주목하여 작가, 큐레이터, 미술사학자들을 모아 학술회를 개최하였고, 미술사학자 Jack Burnham은 이 자리에서 위의 이야기를 공언하였다. 그로부터 40년 남짓이 흐른 오늘, 우리는 붓, 몸짓, 캔버스가 만들어낸 과거의 미학적 전통이 회화교육을 받은 임상빈 작가의 작품에서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를 본다. 컴퓨터가 보편화된 후기산업사회에서 자란 작가는 자신에게 익숙한 디지털카메라, 키보드와 이에 연결된 마우스, 고화질의 광택 시바크롬 인화방식 등을 통해 회화의 새로운 이야기를 전개한다. Jack Burnham의 예상처럼 작가의 컴퓨터를 통해 생성된 사진은 어떻게 컴퓨터가 회화뿐만 아니라 시지각측 측면에도 변혁을 가져왔는지를 시사하고 있다.

임상빈 작가의 작품은 부분과 전체, 아날로그와 디지털, 실제와 허구 등 단순한 이분법적 측면에 주목하여 논의되는 경우가 가끔씩 발견된다. 하지만 조금 더 주의를 기울이면 우리는 작가가 만들어내는 이미지가 이분법적 대립항의 구조를 넘어 어떻게 동시대적 시선이 환영의 공간에서 진행, 중첩되는지를 증거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여기서 환영의 공간이란 단일 개체에 대한 하나의 절대적 접근이 가능하지 않은 복수적인 공간, 즉 다양한 사물, 방향성, 욕구가 끊임없이 교차하고 중복되는 공간을 말한다. 작가는 디지털 언어를 활용한 콜라주, 겹치기 기법 등을 사용, 중첩된 대립항의 공간, 다면층적이고 복수적인 의미의 공간을 창조한다. 이 공간은 작가에게 있어 무한성의 공간이며 우리는 작가가 얼마나 이에 매료되었는지를 발견하게 된다.

임상빈 작가는 수평선 혹은 사물의 끊임없는 복제 등의 방식을 통해 서울, 뉴욕, 뉴헤이븐과 같은 도시의 상징적인 스냅사진을 생성함으로써 알 수 없는 보편적 실제와 개인의 이야기가 만나는 지점을 탐구한다. 얼핏 보면 관광객이 찍은 스냅사진과 같이 보일 수 있는 공공기념물, 도시 지평선, 박물관, 회의실 내부 등이 조작된 이미지는 무한성에 대한 환영적인 개념을 시각적으로 표현하고자 하는 작가의 의지를 반영한다. 미술사학자 Erwin Panofsky는 무한성의 개념은 르네상스시대, 선적인 원근법의 도래와 더불어 수학적, 시각적으로 구체화되었다고 주장했다. 당대의 많은 사람들에게 무한성의 개념 정립은 곧 신의 존재에 대한 증거, 예술에 대한 높은 열망의 반영에 다름이 아니었다. 물론 이것이 작가의 작업 목표인지 아닌지는 중요하지 않다. 중요한 것은 시각적 표현과 수학적 이성, 회화와 컴퓨터, '안'과 '밖'을 넘나드는 작가의 시도가 문화와 기술이 교차하는 이 시대, 우리에게 무언가를 고대하게 하는 새로운 믿음을 주기에 충분하다는 것이다.

Esther J. Kim